

# 禮의 窓으로 다시 바라본 병자호란

허태구(가톨릭대학교)

## 발표 요지

이 논문은 병자호란 전후 조선의 대응을 ‘禮의 실천’이란 관점에 주목하여 재검토한 연구이다.

淸은 남한산성을 포위한 이래, 자국의 전력이 속속 강화됨에 따라 조선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점차 높여 갔다. 主和派의 주장대로 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조선이란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남한산성 농성시 講和 협상의 쟁점이 되었던 것은 영토의 할양이나 전쟁 배상금 등의 문제가 아니라 國書의 형식과 항복의 절차였다. 淸은 稱臣을 표기한 國書, 인조의 出城 항복, 斥和派의 압송을 집요하게 조선에 요구하였다.

당시 강화 협상에 임한 조선의 君臣이 끝까지 고민하였던 문제는 항복의 여부라기보다, 禮를 통해 구현되는 항복의 형식이었다. 대다수 조선인의 입장에서 볼 때, 對明義理라는 大義와 稱臣을 표기한 국서의 형식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斥和派는 戰勢가 확연히 기울어진 상황에서도 대명의리의 고수를 외치며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였다. 이들이 우려하였던 것은 明의 問罪나 보복이 아니라, 대명의리의 포기가 상징하는 도덕과 문명의 붕괴이자 天下와 後世의 평가였다.

## 약력

<허태구(許泰玖) Huh, Tae-koo>

1970년 서울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國史學科에서 學士, 碩士, 博士學位를 받았다.

석사학위논문의 제목은 「17세기 朝鮮의 焰硝貿易과 火藥製造法 발달」이고, 박사학위논문의 제목은 『丙子胡亂의 정치·군사사적 연구』이다. 서울대학교 奎章閣韓國學研究院 學藝研究士를 거쳐, 현재 가톨릭대학교 人文學部 國史學專攻의 助教授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中華主義와 연관된 조선후기의 정치사, 외교사, 사상사이다. 발표한 논문으로는 「丁卯·丙子胡亂 전후 主和·斥和論 관련 연구의 성과와 전망」, 「이나마 이와키치(稻葉岩吉)의 丁卯·丙子胡亂 관련 주요 연구 검토」, 「丙子胡亂 이해의 새로운 시각과 전망-胡亂期 斥和論의 성격과 그에 대한 맥락적 이해-」 등이 있다.